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0월 6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누가복음 19장 1-10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4(일/직업)”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특히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교도들이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부의 추구입니다. 세 번째가 덕있는 행실입니다. 우선 청교도들은 일평생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은 정직한 부를 추구하며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인들은 체계적인 노동과 정당한 부의 추구하고 더불어 덕있는 행실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청교도인들은 지속적인 노동, 정당한 부의 추구, 덕있는 행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율법을 뛰어 넘는 덕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진 표현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카이 이두’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란 인물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란 헬라어 ‘작카이오스’는 ‘순결한’, ‘무죄한’이란 뜻으로써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표현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삭개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늘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관원들은 요단 동편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세리는 사리사욕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빠는 로마정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 내지 변절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에 대하여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당대의 세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평가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에서, ‘그가.. 하되’란 헬라어 ‘에제테이’는 ‘집요하게 찾다’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에서 ‘달려가’로 번역된 ‘프로드라몬’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8절입니다. 8절에서 한글성경에 번역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표현은 미래시제입니까? 현재시제입니까? 미래시제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는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직설법 현재 동사입니다. 직설법 현재 동사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문대로 직설법 현재 동사로 해석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나누

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 본문을 재해석을 통해서 삭개오가 악독 세리장이며 부정한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된 자라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8절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네 갑절을 갚겠다는 것은 레위기 율법이 아닙니다. **레 6:4-5에 보면** 레위기 율법은 착취한 물건이 있으면 착취한 물건의 원금과 함께 그것에 1/5를 더해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배로 갚겠다는 것은 당시 쿰란 공동체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가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까?** 당시 쿰란 공동체의 세례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눅3:7-8) 그때,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눅3:12-13) 우리는 이때 삭개오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건대 분명 어떤 형태로는 삭개오는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 세리들처럼 살면서 시대와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월하게 일했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었던 합당한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뛰어넘어 덕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숙이란 예수님 만나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부를 자신만이 독차지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써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성숙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어떻게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릴까에 대한 질문에 청교도들이 강조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 2) 삭개오란 인물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 만나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교도와 삭개오의 삶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